듣는 강론

가톨릭마산

주님 공현 대축일
2024년 1월 7일
제2599호

동방 박사의 경배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전례

제 1 독 서	이사 60,1–6
화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 2 독 서	에페 3,2.3ㄴ.5–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 음	마태 2,1–12
영 성 체 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사무처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정림 라우렌시오 신부
안식년

마태 2,1-2 :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듯,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원성과 창조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아기 예수님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고백하며 경배드립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왕으로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요한 19,19-20 :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세 가지 언어로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인 명패가 달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서 메시아 임금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만천하에 선포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땅에서 들어올려져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요한 12,32 참조).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을 내려놓으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1코린 1,22-25 :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을 내려놓으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힘과 지혜를 찾고 발견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이들에는 걸림돌이고 어리석음인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분의 삶을 마음으로부터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광을 찾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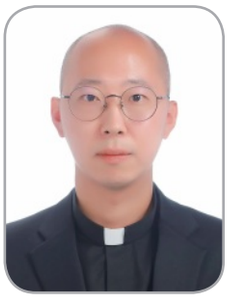
2024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 속에 우리 교구 부제 1명이 사제품을, 2명의 신학생과 삼위일체수도회 수사 1명이 부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들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참된 목자의 길을 따라 일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단

- **일시:** 1월 10일(수) 14:00
-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 **주례:** 수원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

사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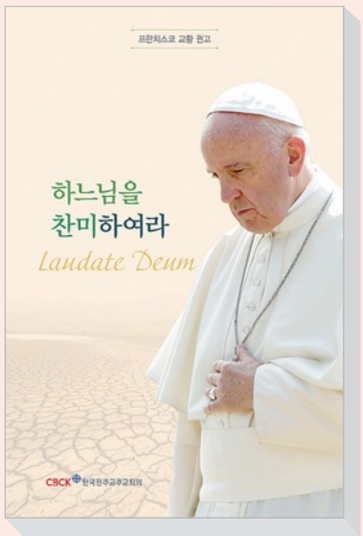
김성근 대건 안드레아
첫미사 월남동성당
1월 11일(목) 19:30

부제품

임상영 토마스 아퀴나스
사파동본당

박명제 대건 안드레아
고성본당

김지승 알렉산델
삼위일체수도회



- 분류: 교황 문헌(교황 권고)
- 번역: 김성수
- 발행일: 2023년 12월 22일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더 크고 비극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16항)

이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의 후속 교황 권고로, 모두 6개 장과 73개 항으로 짧지만 매우 강력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을 살피고 그 피해와 위험을 짚어 보며, 이것들이 그저 미래에 닥칠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안에 당장 마주할 생존의 문제이므로, 더 큰 비극이 닥치기 전에 하루빨리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에 나서도록 권고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8년 전 「찬미받으소서」를 통하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기 위한 생태적 회개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인류와 환경, 경제와 문화, 사회 등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생태론을 사회 교리 형태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충분한 행동도 뒤따르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더 악화된 기후 변화와 더욱 빨라진 생태 파괴의 속도로 마치 "마지막 세기"를 향하는 듯 보이는 현실을 지적하시며,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으므로 당장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과 문화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확인하는 데에 수백 수천 년이 아니라 그저 한 세대면 충분할 정도의 속도로 온난화가 이례적으로 가속화한다는 사실입니다."(6항)

순교자의 탑

민창홍 요한 시인(시, 글, 사진)

편백 나무숲 높은 탑
큰 칼 쓴 죄인의 모습으로 우뚝 솟아
대숲을 돌아 나오는 천사의 소리 듣는다

끊임없이 나누는 새소리 물소리
지세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윤봉문 요셉 순교 성지

불모지에 신앙의 씨앗 심고
성사 주시는 신부님 안내하며
기쁜 소식 온 섬에 퍼 나르던 거제의 사도

당당했던 신앙 고백과 배교 거부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죽음도 두려움 없이
장렬하게 서른여섯의 생 마감하고

풍랑을 헤치며
박해를 헤치며
고향 떠나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편백 나무숲 높은 탑 뒤
영원히 잠들어
대통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빛의 소리 듣는다

순교자 탑

탑 뒤에 모셔진
순교자 유해

경당

윤사우(스타니슬라오)는 가족들과 함께 병인박해 때 고향 경북 영일군을 떠나 피신할 목적으로 거제도에 정착하였다. '거제의 사도' 윤봉문(요셉) 순교자는 윤사우의 둘째 아들로 거제도에서 활발한 전교활동을 펼치고 판공성사를 주기 위해 온 대구본당 로베로 신부를 안내하고 도왔다. 거제도에 박해가 일어나서 윤봉문은 통영으로 압송되어 문초를 받았지만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배교를 거부하다 1888년 4월 1일 진주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36세에 순교했다.

진주 비라실공소 회장이 시신을 거두어 공소 뒷산에 안장했는데 1898년 성낙진 교우가 유족들과 함께 순교자의 유해를 거제도로 모셔와 진목정 족박골의 선산에 안장했다. 그 후 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산교구는 2013년 4월 20일 옥포에서 지세포리로 유해를 모셨다. 마산교구는 앞으로 순교자 기념성당과 교육관 등을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순교자 윤봉문 요셉은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359일

이덕아 아녜스 소설가/ 가톨릭문인회

중고교 시절, 학년이 바뀔 무렵이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일이 있었다.

어느 선생님이 담임을 맡게 되실까? 하는 거였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 각 교실에서는 환성과 침묵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런 설렘과 한숨도 잠시, 우리는 곧 학업과 우정에 골몰했다.

새로운 선생님을 맞듯 새해가 시작되었다.

특별한 기대와 각오로 혹은 담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을 수도 있다. 인내심이 부족한 이들은 작심삼일을 두 번씩 겪었을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어떤가? 담담함이 아닌 덤덤한 마음으로 시큰둥한 것보단 역동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다.

새해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선함은 잊고 익숙한 일상에 열중하게 될 터이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평범하고 자칫 권태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상으로의 회귀다. 지난 팬데믹 현상은 그 일상의 소중함을 깨우쳐준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들 한다. 그런 소중함을 우리는 벌써 잊은 건 아닐까? 밋밋한 일상이 지겹기만 하고 만사가 시들해 보인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일이 년 전으로 가보면 치유될 것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충무공 이순신의 명언이다. 우리에겐 아직 359일이나 남아 있다. 작심 하루를 삼백, 오십, 아홉 번이나 실행할 수 있는 기회다. 사족을 달자면 작심 하루보다는 이틀이나 사흘이, 그보다는 마음먹은 일을 마침내 이뤄낸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러니 우리 모두 부지런히 작심들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올해 말쯤엔 그 작심이 이뤄낸 결과물로 흐뭇해하지 않을까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그리되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수항목이 있다. 요즘 말로 '꿀팁'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 보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작심을 하고 꿀팁을 탐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라면,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전에 '어쩔 수 없지 뭐'란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새해 벽두에 웬 황당한 소리냐고 허탈해 할 이유도 없다. 이사야서 46장 4절의 절절한 음성이 그 증거이다.

"너희가 늙어 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 낸다."

교구장 서리 동정

수품자 선발예식
일시: 1월 9일(화) 19:30
장소: 교구청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1월 10일(수) 14:00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꾸르실료 강의
일시: 1월 12일(금)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정흥식 마르코 신부 퇴임 감사미사
일시: 1월 14일(주일) 10:30
장소: 남성동성당

허철수 미카엘 신부 퇴임 감사미사
일시: 1월 14일(주일) 10:30
장소: 북신동성당

교구/본당

전국 홍보국장 회의
일시: 1월 9일(화) 11:00/ 장소: CBCK

전국 사회사목국장 회의
일시: 1월 11일(목)/ 장소: CBCK

전국 청소년국장 회의
일시: 1월 12일(금)/ 장소: CBCK

수품자 선발예식
일시: 1월 9일(화) 19:30/ 장소: 교구청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1월 10일(수) 14:00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성경 교육봉사자 양성팀 교안발표
일시: 1월 8일(월)/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정)

기 타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원서접수: 23년 11월 13일(월)~2월 16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2024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전진상 영성센터 02·726·0700, 0701
www.jjscen.or.kr 게시판 참고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월 14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3~39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일시: 1월 20일~22일/ 1월 26일~28일/ 2월 2일~4일/ 2월 17일~19일/ 2월 25일~27일/ 3월 10일~12일/ 3월 16일~18일/ 3월 21일~24일(추자도)/ ※ 1~2월은 한라산 눈꽃산행 일정 포함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일시: 1월 27일~29일/ 2월 3일~5일/ 2월 14일~16일/ 2월 23일~25일/ 2월 27일~29일/ 3월 1일~4일(추)/ 3월 8일~10일/ 3월 13일~16일(추)
※ 1~2월 한라산 눈꽃산행 일정 포함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겨울 성소피정
일시: 1월 26일(금)~28일(주일) 2박 3일
장소: 안토니오 피정의 집(서울 평창동)
주제: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대상: 35세 이하의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형제
문의: 010·6608·3217 성소담당 신부, 선착순 모집

몸 신학 피정(ICPE 선교회)
일시: 1월 27일(토)~28일(주일) 1박 2일
장소: 부산 분도명상의집
대상: 성인 남녀 누구나(자녀 동반 가능)
회비: 성인 12만 원, 학생 5만 원, 미취학 무료
문의: 010·3889·1272

2023~2024 청소년 성소계발과 최양업 신부님 시복을 위한 독후감 공모전
대상: 청소년 및 일반 신자
분량: A4 2장 이상
마감: 3월 17일(주일)까지
시상: 청소년, 일반 각 장원(100만 원), 우수(50만 원), 장려(20만 원)
▶자세한내용은 **한국평단협 홈페이지** www.clak.or.kr 참조

성바오로수도회 창립 110주년 기념(명동성지 피정)
일시: 8월 20일(화) 11:00~16:00
장소: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대상 : 바오로가족협력자 회원, 레벤북스 회원
진행 : 박득태 루카 신부
강의: 양은철 안드레아 신부/ 순례기도: 모임별 회장단
레크레이션: 이해동 라파엘 신부
파견미사: 이창항 세바스찬 신부
주최 및 문의: 바오로가족협력자회 02·944·8421, 010·9752·8421 레벤북스 010·2557·1361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녕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완월동본당 제39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최미순(말가리다)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주호(요셉)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이영애(사비나)
총무분과위원장: 김재형(안드레아)
재정분과위원장: 최영민(요셉)
복음화분과위원장: 최미현(크리스티나)
교육분과위원장: 서경숙(율리안나)
전례분과위원장: 박해경(헬레나)
구역분과위원장: 강필남(아녜스)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종인(유스티노)
시설분과위원장: 이재환(바오로)
청소년분과위원장: 이민지(프란치스카)
생태분과위원장: 김재순(레지나)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1월 8일(월) 19:00	중앙동성당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김현우 바오로 신부(인천교구)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 연락)	부산 본원	010·9353·1773(김 토마스 수녀)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금잔 크림 50ml 20ml
힐데 스킨 100ml
EM 힐데 비누 65g
힐데 샴푸 400ml 200ml
힐데 크림 50ml 20ml 15ml
툿찡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모집
제주도(추자도) 매주 (월) 출발
한국성지167 부산·마산교구 3일-2월 16일(금)~18일(주일)
■해외 성지순례 모집
그리스·터키 12일-2월 27일(화)~3월 9일(토)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대성의전 경남장묘권설립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32

최윤정 헬레나(장등본당)

2023년 마산교구 거제, 마산, 창원지구 공소 23곳 순례를 마친 후 아직 제 뇌리 속에 남아 있는 기억과 느낌을 남겨보면 훗날 추억이 될 것 같아 11월의 끝자락에 용기 내어 적어봅니다.

평소 '가톨릭마산' 교구보를 꼼꼼히 보지 않는데, 그날은 공소 순례 내용이 기재된 것을 우연히 보면서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단 한 번도 공소를 가 본 적이 없는 저에게… 또 '굳건하지 않은 나의 신앙생활에 좀 더 뿌리를 내리라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시그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레지오 등 신심단체에서 함께 순례를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레지오를 하지 않고, 또 혼자 짧은 여행이라 생각하며 다녀오는 것도 힐링이 되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처럼 스탬프 찍기는 제게 동기 부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공소를 방문할 때는 각각 다른 친구가 동행하여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인데도 순례를 아주 즐기며 흥미로워 했습니다. 물론 공소 주위의 맛집 탐방도 한몫한 듯합니다. 그중 한 명의 친구는 세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여 그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시골 할머니 댁을 방문한 것 같은 담벼락이 있는 산달공소, 비 오는 날 고즈넉한 분위기의 마당에 매료되었던 상리공소,

소박하지만 성스러운 제대가 인상적이었던 황리공소, 화이트와 레드의 외관이 예뻐서 마당 구석 나무 아래 벤치에 혼자 앉아 가을을 만끽하게 해 주었던 장암공소, 낡고 오래된 것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을 가져다준 칠곡공소, 복자 김기량 순교자의 복자화가 도유화로 표현된 욕지공소… 이 모든 곳들이 하느님께 감사함을 고하고 차분하게 묵상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그 어느 성전보다 더 하느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어 준 곳들이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강직한 믿음을 지니신 선조들의 삶을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공소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고개가 숙여지며, 열악한 환경의 공소 발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사전에 공부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머물며 좀 더 뜻깊은 순례를 해 보기를 희망합니다.

처음 시도해 본 공소 순례는 저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준 듯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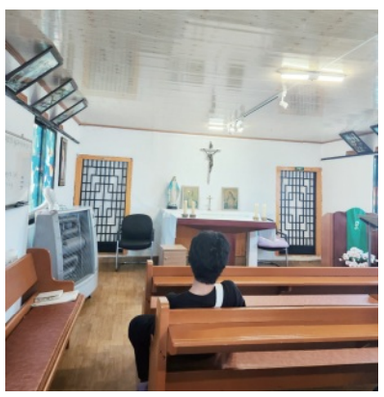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33

김일순 젬마갈가니(문산본당)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들과 함께 공소 순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아들이 엄마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올해는 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고 더해졌다고 할까요? 아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으로 올해도 순례를 하자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생각으로 결정한 것보다 성령의 이끄심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순례를 하면서 성모상이 훼손되어 발 부분만 겨우 남은 성모님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마을 주민이 널어놓은 농작물이 공소 입구를 막고 있어 요리조리 피해 들어가기도 하고, 자작나무를 잘라 만든 십자가를 보며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은 영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쁘고 즐거운 일 들 보다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인생의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소 순례를 통하여 제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결국 하느님 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낙후된 시설의 공소를 방문할 때마다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괴로울 땐 15분만 달려가면 저를 안아주는 아름다운 성당이 가까이 있지만 공소의 신자들은 이곳을 방문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신자들은 제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에, 더욱 내면의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성당 안 조용한 곳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다며 집에서는 기도를 게을리했던 저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에 시작한 순례가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과 함께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아들과 함께여서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여서 마음만은 즐거운 순례길이었습니다. 이제 제법 소년의 티가 나는 아들이 언제 또 엄마와 함께 순례를 나서줄까요? 그때 또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29

통영지역 교우촌 (2)

훗날 조선교구 6대 교구장에 임명되는 리델(Ridel 李福明) 신부는 1861년 3월 조선에 입국한다. 당시 31세. 충청도 공주公州를 본거지로 선교사의 삶을 시작했다. 그러다 1864년 여름부터는 경상도까지 담당하게 된다. 남부지역 교우 수가 불어났던 것이다. 치명일기에 의하면 이 무렵 함안의 순교복자 구한선(具漢善 타대오)과 함께 거제도를 방문했다. 병인박해가 일어나기 이전이었다.

거제도를 가려면 고성 바닷가와 통영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소촌(문산)에 거주하던 구한선(타대오)을 복사服事로 채용한 것은 그의 안내를 받기 위해서였다. 가는 도중의 숙박宿泊은 안전한 교우촌이 아니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고성과 통영 교우촌에 리델 신부가 머물렀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한편 리델 신부는 입국할 때 조선의 교우촌이 그려진 지도를 갖고 있었다. 지도의 초안은 김대건 신부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도엔 고성과 통영, 거제 교우촌이 표기되어 있었다. 마음먹고 경상도 남해안까지 내려온 리델 신부가 이 교우촌들을 그냥 지나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촌과 함안, 고성, 통영, 거제 교우촌을 최초로 방문한 선교사는 리델 신부임이 틀림없다. 공적 기록인 치명일기致命日記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사목 방문은 분명 병인박해(1866년) 이전에 있었다.

리델 신부는 통영 교우촌에 머물렀다. 정확하게 말하면 통영의 어떤 교우 집에서 고백성사와 미사 봉헌을 했다. 그곳은 어디였을까? 우선 당시 교우촌을 신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부락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연락이 가능한 곳에 흩어져 숨어살던 교우들. 그러다 연락이 닿으면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교우들. 이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 당시는 공적으로 천주교를 금하고 있던 시대였다.

통영이란 지명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의 통영시 일대가 행정적으로 독립한 것은 1900년부터다. 그 이전엔 고성현 춘원면春元面에 속해 있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춘원 교우촌이라 하지 않았다. 리델 신부의 교우촌 지도에도 통영으로 나온다. 일찍부터 이곳은 통영이란 특별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수군水軍 본부였던 통제영統制營은 1603년 이곳에 자리 잡는다. 이듬해엔 통제사 집무실 세병관洗兵館이 지어졌다. 예전의 이곳은 그야말로 한산한 갯마을이지만 이렇게 해서 군사도시가 되었던 것이다. 군인 가족들이 오고 상인들이 따라와 정착하자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곳을 통영이라 불렀다. 훗날 피난 교우들이 숨어들기에 좋은 조건이었던 것이다.

리델 신부를 모셨던 교우는 장사를 했거나 군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며 살았을 것이다. 통영의 피난 교우들 대부분이 그런 직업이었을 것이다. 그들 중 누군가가 집을 제공했다면 세병관에서 멀지 않은 지역일 것이다. 지금의 서호동 일대가 아니었을까?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이렇듯 병인박해 이전엔 통영과 인근에 피난 교우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온 경로는 두 가지다. 정해박해를 피해 서부경남으로 왔다가 문산, 고성을 거쳐 온 교우들. 다음은 낙동강을 따라오던 교우들이 함안을 거쳐 고성지역으로 들어온 경우. 일부 교우들은 거제도까지 갔다. 그러나 1866년 병인박해와 1868년 무진박해 때 이곳 교우들은 완전히 흩어진다. 특히 무진박해는 남해안 교우 색출이 주된 임무였기에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었다.